

# 광양매일시장 새단장 내달 3일 개장

### 81억원 들여 시설현대화 마무리 1층 점포 31곳 2층 커피숍 등 입점 남도의 정·풍악 흐르는 개장식 준비



시설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 3일 개장식을 갖는 광양매일시장 전경. <광양시 제공>

“옛 정취 가득한 전통시장으로 오세요.” 광양시는 옛 광양읍 성터에 자리한 광양매일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3일 공식 개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양매일시장은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광양읍의 중심 상권 역할을 해왔으나 지난 1995년 광양군과 동광양시 통합에 따른 청사와 광양경찰서, 광양읍사무소 이전 등으로 상권이 쇠퇴하면서 침체기를 겪어왔다.

시는 광양읍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마치고 지난 2019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28억원 포함 총사업비 81억원을 투입해 준공했다.

광양매일시장은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횡집, 분식, 야채, 견어물 등 점포 31개소와 수산물판매장, 노점 등 기존 상인들이 대부분 입점하고, 2층은 커피숍과 베이커리, 미용실, 공방 등 신규 상인들이 입점해 조화를 이루며 시장 활성화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시는 전남도 장터유랑단과 함께 줄타기, 동동구름무, 옛장수 놀이, 솟대타기 등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는 등 남도의 정과 풍악이 흐르는 개장식을 준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는 정기시장 3개소 ▲광양5일시장(장날 1, 6) ▲옥곡5일시장(장날 4, 9) ▲진상5일시장(장날 3, 8)과 상설시장 3개소 ▲중마시장 ▲광영상설시장 ▲광양매일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영상설시장은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증축 공

사를 하고 있다.

허정량 광양시 투자경제과장은 “옛 시장의 명성을 기대하는 고객과 상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풍성한 개장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먹거리와 살거리가 풍성한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노관규 순천시장 6월까지 현장 소통 '순천상생토크'

순천시는 다음 달 3일부터 6월까지 노관규 시장이 시민을 만나 대화하는 '2024 순천상생토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관규 시장은 기존 24개 읍면동을 돌며 주민들의 사정을 듣고 답하는 방식에서, 올해는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 현안별, 계층별, 권역별로 만남을 갖는다.

순천상생토크는 5월3일 남문터 광장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업 방안'에 대한 현장 대화를 시작으로 청년, 노인, 농민 등 계층과의 만남, 읍면지역 시민과의 대화 등 총 15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 시장은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해 연령, 직업,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과 맞춤형 시장 소통을 펼치고 원거리 읍면지역 주민들을 고려한 순회 소통 시간도 갖는다.

민선 8기 2년을 앞둔 시점에서 일방적인 정책 전달이 아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장 설명 및 생생한 현장 의견 청취로 알맹이 있는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노관규 시장은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소통으로 시민 모두가 상생할 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순천이 경쟁력 있는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시민과 의견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고흥 농·어기에서 일할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29명이 입국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고흥군 라오스 계절근로자 29명 입국 배정

다음달 2일 20명 추가 입국

고흥군이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해 처음 입국했다고 28일 밝혔다.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29명은 지난 26일 입국한 뒤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관리 농협에 배정됐다.

라오스 근로자는 오는 5월2일 20명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올해 상반기 법무부로부터 농업 분야 326명, 어업 분야 152명 총 47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그동안 필리핀 계절근로자만 운영해왔지만, 고

흥군은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라오스, 몽골,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해 11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를 찾아 업무협약을 맺고 농·어·어업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라오스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용주·계절근로자 인권 교육 등을 통해 표준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폐교를 리모델링한 여수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 여수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다음달 11일 개관

여수시가 전남권 최초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완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여수시는 공공 실내 놀이터가 완공돼 29일부터 5월10일까지 2주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전 체험 기간을 갖고, 1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수시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화양면 옛 나진 초등학교 용장분교 폐교를 활용해 롯데지주(주)의 후원금 5억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추진으로 조성한 전남권 최초의 실내형 놀이터다.

놀이공간은 기존 교실을 활용해 센서놀이터인 인터랙티브존, 교구나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조물조물놀이존, 볼풀, 로프오르기, 정글짐 등이 있

는 우당탕탕놀이존으로 구성됐다.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친환경소재의 놀이기구가 배치됐다. 쾌적한 놀이 환경을 위해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도 갖췄다.

여수시에 거주하는 12개월 유아부터 미취학 아동까지 입장할 수 있다.

여수시는 2주간의 사전 체험 기간을 거친 후 5월1일 여수시 OK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아이들이 계절과 기후변화 등 외부환경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보육 도시 여수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 보성녹차 친환경 감시원 운영 인증 관리 강화

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도 농업기술원·보성녹차연합회와 협약

보성군이 농산물 지리적표시 1호로 등록된 '보성녹차'의 친환경 감시원을 운영하며 인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성군은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전남도 농업기술원, 보성녹차연합회와 대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성녹차 안전관리'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방도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박홍재 전남도 농업기술원장, 박동호 보성녹차연합회장 등이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농산물 지리적표시 1호로 등록된 '보성녹차'의 친환경 인증을 강화해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성녹차'는 대한민국 농산물 지리적표시 1호,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은 국가중요농업유산 11호로 지정돼 역사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보성군은 친환경 감시원을 운영하고 유기 재배·유기 가공 농가를 지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리적표시제·친환경 인증 농가를



김철우(왼쪽 두 번째) 보성군수와 방도혁(왼쪽 세 번째)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등이 '보성녹차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교육하고 잔류농약 검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유기 재배관리 지도, 보성차 제품개발 기술 지원을 한다. 보성녹차연합회는 인증 기준 품질관리를 준수(유기 인증·유기 가공 100% 유지)하고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약 기관 업무 협조를 약속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보성녹차 안전관리' 업무 협약이 대한민국의 차 산업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보성 차를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해외 경쟁력을 갖추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